

미국 주식 알리미



주식전략/시황. 한대훈 / 3773-8515, handaehoon@sksecurities.co.kr
연구원. 이재윤 / 3773-8921, jyun.lee@sksecurities.co.kr

#3. 럭셔리 패션계의 넷플릭스를 꿈꾸는 파페치(F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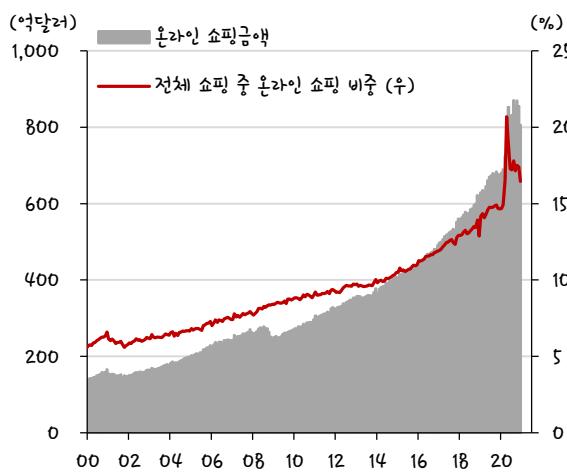
이번 주 드디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다. “Build Back Better”的 슬로건을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대규모의 부양책을 펼쳐 경제살리기에 나설 전망이다. 이미 1 인당 1,400 달러의 추가 현금지급을 포함한 1.9 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제안했다.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된 만큼, 의회 통과 가능성도 높다. 백신 기대감과 맞물려 바이든의 부양책 효과로 인한 경제활동 재개, 그리고 추가 현금지급 등으로 미국 소비 시장이 회복되면 다시 한번 눈여겨 볼 기업이 있다. 바로 파페치(Farfetch)다.

파페치는 럭셔리 패션 온라인 쇼핑몰로 1,200 개가 넘는 브랜드를 판매한다. 명품 패션계의 아마존 또는 넷플릭스로 불리기도 한다. 럭셔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19로 온라인 쇼핑의 확산, 재난지원금 등으로 지급된 자금이 명품소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주가가 상승했다. 밀레니얼 및 Z 세대들은 명품수요가 높아 향후 전망도 밝다. 2017년부터 온라인 럭셔리 시장이 20%씩 성장한 가운데 같은기간 파페치는 50% 가까이 성장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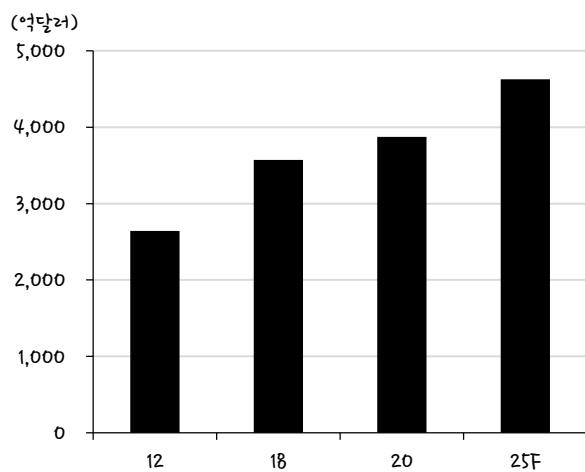
중국향 매출증가도 기대된다. 파페치는 알리바바, 텐센트, 징동닷컴 등으로부터 대규모의 투자를 받은 바 있다. 중국의 바링허우(80년대생), 주링허우(90년대생)가 명품소비의 주요고객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19 이후에도 온라인 쇼핑이 계속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 중국 내 매출성장도 기대된다.

다른 유통플랫폼과 달리 생산기업의 마진이 높아 향후에도 많은 기업들의 참여가 기대된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가 현금지급 등의 부양책을 예고했다. 이번에도 추가 지급된 현금이 럭셔리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높다. 지금 파페치(Farfetch)를 다시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다.

온라인 쇼핑의 비중은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명품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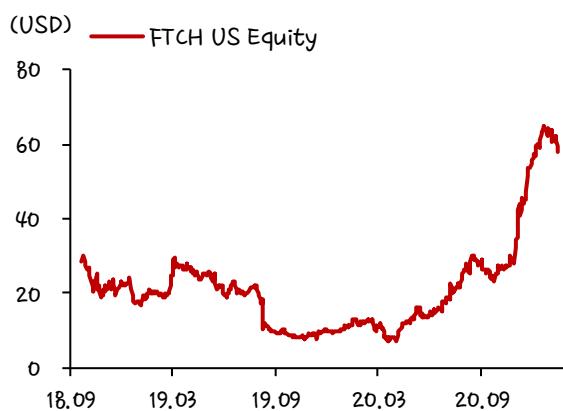


기업소개: 파페치(Farfetch, FTCH)

FARFETCH

파페치(Farfetch)는 럭셔리 패션 온라인 쇼핑몰이며, 전세계를 배경으로 1,200 개가 넘는 부티크와 브랜드의 상품들을 판매한다. 사명은 '먼'이라는 의미의 'Far', '가져오다'라는 의미의 'Fetch'를 합해 '멀리서 가져오다'라는 뜻이다. 네베스 CEO가 2007년 명품 부티크 사업자들을 도우기 위해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배송 시스템을 제공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지난 11월에는 알리바바그룹과 리치몬트(글로벌 럭셔리기업)가 동시에 각각 3억 달러를 투자하고, 파페치 차이나에는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합작법인을 설립한 바 있다.

최근 주가 추이



현재 시가총액과 밸류에이션

시가총액 (십억, USD)	19.7
PER (X)	N/A
PBR (X)	60.6
DPS (USD)	0.0
ROE (%)	N/A

자료: Bloomberg, SK 증권

자료: Bloomberg, SK 증권

최근 3년간 실적 추이

	17Q4	18Q1	18Q2	18Q3	18Q4	19Q1	19Q2	19Q3	19Q4	20Q1	20Q2	20Q3
매출액	126.5	122.7	144.8	132.2	195.5	174.1	209.3	255.5	382.2	331.4	364.7	437.7
영업이익	-34.3	-35.1	-36.8	-76.8	-24.6	-85.5	-95.8	-80.3	-126.4	-42.3	-418.8	-147.0
당기순이익	-54.8	-50.7	-17.7	-77.3	-9.9	-109.3	-89.7	-90.3	-116.9	-82.1	-439.6	-544.3
EPS				-0.37	-0.30	-0.03	-0.36	-0.29	-0.28	-0.34	-0.24	-1.29

자료: Bloomberg, SK 증권 / 주: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단위는 백만 USD, EPS는 USD